

· F · O · C · U · S ·

긍정적인 사고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드릴 것입니다.

영림산업 신영준 사장



1. 영림산업의 업무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 주십시오.

저희 영림산업은 냉난방 관련 전문 시공업체로 냉동사업부, 보일러사업부, 환경사업부, 설비사업부, 탱크제작부, 약품사업부, 인테리어사업부 등 각 파트별로 최고의 노하우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전문 엔지니어들이 포진해 있습니다. 특히, 설비사업부는 저희 영림산업이 가장 자신 있어 하는 분야입니다. 그 밖에도 기관실과 전기실, 직원 취업 등의 문의와 각종 공사건의 문의에 성심껏 답해드리고 있습니다. 비록 중소 규모의 회사지만 기술력과 업무처리

에 관한한 최고의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게다가 업계최고의 노하우를 자랑하는 열일동우회의 일원으로서 동우회 회원간의 엄선된 정보교환을 바탕으로 냉난방 전문시공업체로서의 능력은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2. 남다른 경영철학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는 기업'이 저희 영림산업의 사훈(社訓)입니다. 저희 영림산업은 비록 중소규모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만, 절대 소규모 업무라고 배제하고, 안일하게 처리해 온 적은 한번도 없습니다. 최상의 기술력으로 최상의 서비스를 지향하는 것이 저희 영림산업의 목표입니다. 다른 모든 분야와 마찬가지로 우리 업계도 하루가 다르게 무수한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신기술과 새로운 기계의 등장에 발빠르게 대처하기 위해 저는 물론 직원들도 재교육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협회에서 교육이 있을 때마다 직원들과 함께 교육에 참여하는 것도 그런 이유입니다. 또한 저는 직원들과의 화합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작업복에 기름때를 물려가며 직원들과 함께 현장에서 땀을 흘리고, 직원들

의 재교육에 함께 참여하는 등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항상 보여주려고 합니다. 제가 앞에서 이끌어주고 직원들이 진심으로 따라와 주는 환경 조성이 저희 영림산업이 성장하는데 가장 큰 도움을 주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3.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가지고 계신 신념이 있으시다면?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긍정적인 사고를 통해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도 최선을 다하자는 것이 저의 오랜 신념입니다. 부정적인 사고는 우리의 시야를 어둡게 만듭니다. 똑같은 일을 처리하더라도 부정적인 사고와 긍정적인 사고의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점이 생깁니다. 저희 영림산업의 업무가 흑자들이 말하는 3D업종임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이고, 없어서는 안돼는 일입니다. 저는 업무환경, 작업환경이 열악하더라도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저희 업무에 자부심을 가지고 임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해야 할 일, 없어서는 안될 일, 바로 그 일에 저희 같은 기술인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긍정적인 사고의 발로입니다.

4. 열관리사협회의 일원이셨습니다.

협회를 바라보는 남다른 관점이 있습니까?

저는 협회의 창단멤버였습니다. 협회의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언제나 협회의 행보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의 협회가 처한 상황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과도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더 멀리 뛰기 위해 잠시 움추린 개구리처럼 말입니다.

최근 협회가 '흡수식냉난방기 시설관리사'의 국가공인자격인증을 획득하기 위해 인증기관으로부터 실사를 마친 것을 관심있게 지켜봤습니다. 또한 에너지관리공단과의 상호보완과 협조체제 구축을 통해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모습도 보고 있습니다.

대내외적으로 분발하고 있는 협회의 모습을 보면 열관리인들의 밝은 미래를 상상해 봅니다.

물론, 회원들의 협회에 대한 믿음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투명성을 강조한 협회의 운영에 이제 회원분들도 과거 불신의 이미지를 씻고, 새롭게 다가가고 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부디 앞으로도 지금의 과도기를 잘 극복하고 더욱 힘있고 능력있는 협회로 새롭게 태아나길 기대해 봅니다.

- 새로운 개념, 새로운 이름
- 섹션잡지 에너지설비관리 탄생!
- 이제 에너지사용설비에 대한 관리문제는 에너지설비관리지 한권으로 해결하십시오.

에너지와 관련된 잡지는 많습니다. 하지만 모두 구독하기에는 비용부담이 큽니다. 시대를 앞서가는 에너지관리자는 에너지설비관리지 한권으로 해결합니다.

정기구독 문의 T.(02)2679-6464~5

#정기구독료 개취백제도 절찬 시행중#
정기구독료 3만원 돌려받자!
에너지설비관리지 구독자로서 다른 정기구독자를 유치해주시면 3만원을 현금으로 돌려드립니다.

